



권준 목사의 목양칼럼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것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며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올해의 성탄은 매우 추운 겨울의 맛을 제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시애틀 뿐 아니라 동부도 모두 추운 날씨로 인해 비행기가 지연,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모처럼 가족을 만나러 여행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날씨이지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 동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일정중에 뮤지컬 공연인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랭커스터 라는 조그만 도시에 2000 석의 극장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일년 내내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연이 매일 매진되고 미국 곳곳의 사람들이 관광 코스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공연을 본 지인들이 그 것을 보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 중에 꼭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처음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다윗’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감동과 깊은 메시지가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였는가 아닌가의 의미를 떠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목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너무 바빠서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마저도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하려다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일들이 짐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뮤지컬을 보며 느꼈던 것은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함께 하여 주고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는 이 위험한 길을 갈 수 없지만 함께 하며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이 길이 아주 흥미로운 탐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으며 사랑하는 형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에 다시 집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여 있을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고,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형제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며 지내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FAMILY WORSHIP

12/25(오늘)은 성탄 주일로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족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성탄 헌금은 성탄 특별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 특별 헌금은 불우 이웃과 긍휼 사역 기관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배	여성								
<p>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30, 비전홀</p> <p>금요성령집회(12/30): 오후 8:00, 비전홀</p> <p>주일예배(1/1):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p>	<p>2023년 여성 예배, 소그룹 현장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1/18(수), 오전 10:00 ·장소: 바셀 캠퍼스 빌딩2, 예배실 ·차녀케어: 1살 이상-5살 미만 ·문의: 김비비안(206 697 5071), 김성은 (425 459 7178) 								
새가족	양육								
<p>새가족 등록 안내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새가족실 (201호)에서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p> <table border="1"> <tr> <th>이름</th> <th>시</th> </tr> <tr> <td>김형원</td> <td>Bothell</td> </tr> <tr> <td>구원모 / 유아영</td> <td>Shoreline</td> </tr> <tr> <td>송정훈 / 송미정</td> <td>Lynnwood</td> </tr> </table>	이름	시	김형원	Bothell	구원모 / 유아영	Shoreline	송정훈 / 송미정	Lynnwood	<p>생애 프리뷰 클래스[Qt Preview Class] “1월편” 내용: 형제 양육팀에서 2023년 1월 생명의 삶 본문을 미리 살펴보는 “생명의 삶 프리뷰 클래스”를 온라인으로 개설합니다. 누구든지 시청이 가능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2/30(금), 7pm(45분 강의) · 시청방법: <<Zoom Meeting>> · Meeting ID: 507 855 8945 · Passcode: 1004
이름	시								
김형원	Bothell								
구원모 / 유아영	Shoreline								
송정훈 / 송미정	Lynnwood								
감사	기타								
<p>간식 1부: 최일준 2부: 이재이미, 이종호 3부: 이승현, 김연수, 김지애</p> <p>2023 간식(떡)으로 섬기실 분께 생일, 기념일, 추도일 등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분은 주일 각 예배 후, 로비에 비치된 간식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각칸 \$100) 헌금하실 때에는 헌금봉투에 “간식비”라고 적어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p>	<p>생명의 삶 1월호 서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p>								
<p>생명의 삶 1년 정기구독권 1년 정기구독 \$75 문의: 형제 서점</p>									

2022 성탄주일 세례자 명단

성인세례 (2부): 한경남, 장민석
유아세례:
2부 - 성재 Mathis, 장세아, 박이연, 윤서린, 장주하, 장세하, 진지후, 김로운
3부 - 이하민, 노해나, 박새은, Rhylee Gayo, Rya Gayo, 정세진, 권진리, 알렉산더 지우 해멀리, 최재이

송구영신예배

일시: 12/31(토)
오후 7:00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오후 9:00
장소: 바셀캠퍼스 빌딩1, 본당

홍리스를 위한 “따뜻한 사랑의 선물” 도네이션

·일시: 12/18(주일) - 12/31(토)
·장소: 바셀캠퍼스 빌딩1 로비
·품목: 침낭, 블랭킷, 겨울 용품 등등(새것으로)
·문의: 서길석 팀장(206.512.0959)

2023 신년사경회

시편에서 배우는 신앙의 언어
강사: 박성현 교수(고든콘웰 신학교)
일시: 1/16(월)-1/20(금), 오후 7:30
장소: 바셀캠퍼스 빌딩1 본당
현장 참가비: \$20

온라인 등록